
중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, 창업대국

2015. 5.

< 목 차 >

- I. 개요
- II. 중국의 신규 창업업체 추이
- III. 중국내 기업 수 증가 요인
- IV. 결론 및 시사점

한국무역협회
북 경 지 부

□ 고도 성장기를 끝낸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‘신창타이(新常態)’ 시대에 진입하면서, 취업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

0 올해 3월에 개최된 2015년 ‘양회¹⁾’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정부 사업보고를 통해 취업을 확대하고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‘대중창업, 만중혁신(大衆創業, 萬衆創新)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

- ‘대중창업, 만중혁신’은 사회적으로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 수를 늘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새로운 기술, 새로운 제품,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모토임
- 리커창 총리는 잠재된 창의력을 개발하여 시장이 활성화 된다면,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을 이겨내고 중국경제의 활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
- 정부 차원에서 행정혁신과 규제혁파를 통해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자유로운 창업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

□ 최근 중국정부는 ‘삼증합일(三證合一)’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 유도

0 기존에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상영업집조(영업허가증), 조직기구코드증, 세무등기증 등을 따로 취득해 사용해야 했으나, ‘삼증합일’ 제도가 실행되어 상기 3종의 증서를 하나로 합친 단일증서만 취득하여 사용하면 됨

1) 2015년 양회(兩會)는 2015년 3월 3일-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와,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차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의미함

0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새로운 등록자본금제도는 창업 비용을 줄이고,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음

- 새로 발효된 ‘회사법’ 개정안은 2013년 12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(한국의 국회)에서 통과되었음
- 기존 회사법에서 요구되던 최저등록자본금 기준을 폐지하여,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음

※ 수정 前 ‘회사법’은 최저 등록자본금을 유한책임회사는 3만 위안, 1인 유한책임회사는 10만 위안, 주식유한회사는 500만 위안으로 규정한 바 있음

□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그 수치는 다른 경제대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임

0 중국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4년 경제성장률은 7.4%로, 2010년에 두자리수(10.6%)로 성장한 것에 비해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세임. 또한 경제규모는 64조 위안(10조 달러 규모)에 달해,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 다음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(3위인 일본의 2배 이상 규모)를 유지하고 있어 창업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

< 최근 중국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추이 >

(단위: 억 위안)



* 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 '201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 공보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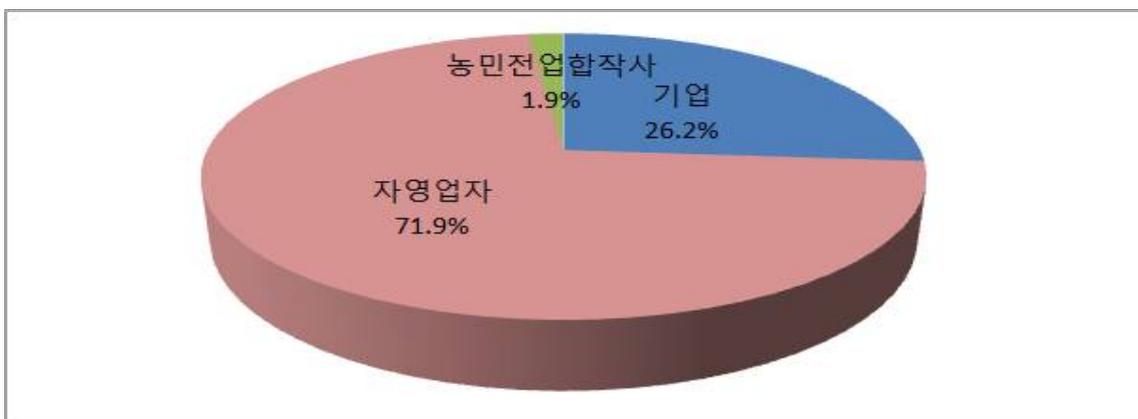
1. 전체 규모

□ 최근 정부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음

○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(이하 ‘공상총국’ 으로 약칭함)의 발표에 따르면, 2014년 말까지 정부에 등록된 업체²⁾ 수는 일반기업(외국기업 포함), 자영업자, 농민전업합작사(협동조합) 등을 포함하여 누계로 총 6,932만 개에 달함

- 그중 일반기업 수는 1,819만 개, 자영업 수는 4,984만 개, 농민전업합작사는 129만 개임
- 자영업자 비중이 71.9%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, 일반기업은 26.2%, 농민전업합작사는 1.9% 차지

< 2014년 말 기준 등록 업체별 유형 비중 >



* 출처: 중국 공상총국

2) 중국식 용어는 시장주체(市場主體)이며, 공상총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(중국식 용어는 營業執照)을 취득한 업체(개인 포함)들을 지칭.

2. 신규 창업 기업

□ 최근 신규로 정부에 등록된 일반기업(전체 등록 업체 수에서 자영업자와 협동조합을 제외한 기업)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

○ 2014년에 신규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1,292만 개로 전년 대비 14.2% 증가. 그 중 일반기업은 365만 개로 전년 대비 45.9%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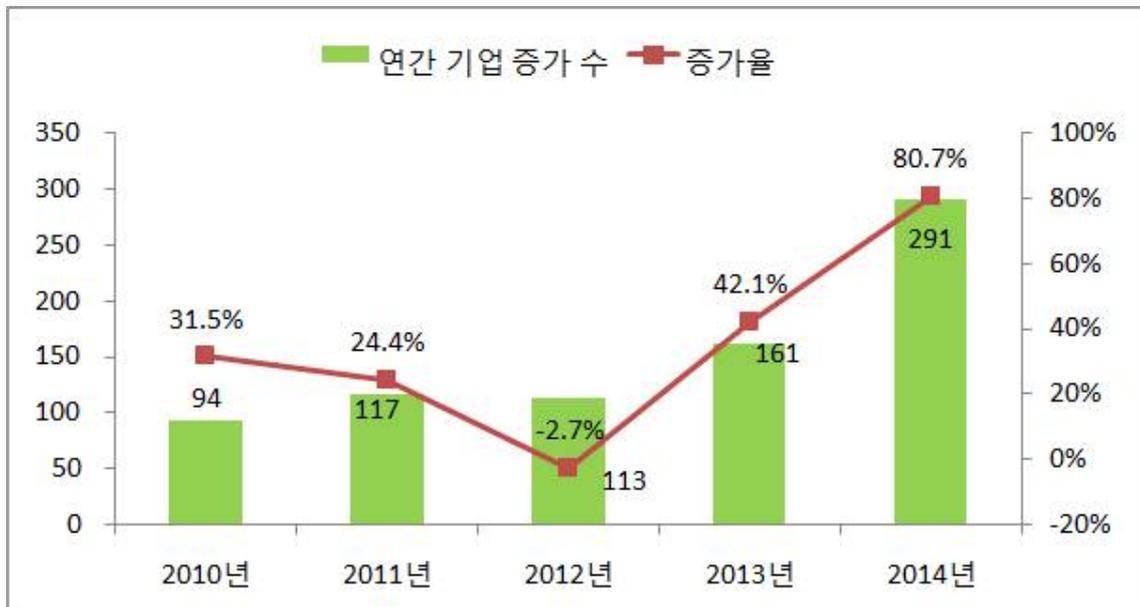
- 기타 신규 등록 업체 중에서 자영업자 수는 896만 개로 5.1% 증가, 농민전업합작사는 31만 개로 9.6% 증가했음

- 신규 창업 일반기업 수는 2011년에 200만 개, 2013년에는 250만개에 불과했으나, 2014년에는 365만 개로 급속히 증가

○ 연도별 일반기업 순증(연간 창업 수 - 연간 폐업 수) 추이를 살펴보면, 2014년에 80.7%로 가장 빠른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

< 최근 연간 순증 일반기업 추이 >

(단위: 만 개)



* 출처: 중국 공상총국 연도별 발표자료 자체 정리

3. 3차 산업 비중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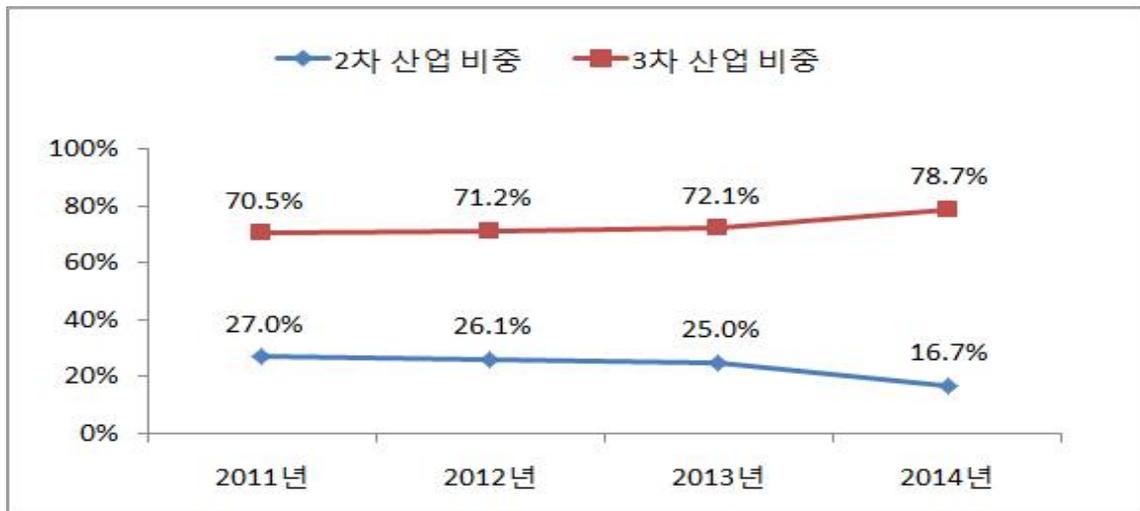
□ 공상총국의 발표에 따르면, 신규 창업 일반기업 중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, 2차 산업 비중은 점차 감소

○ 2014년의 신규 창업 기업 중에서 3차 산업(상업, 금융 등 서비스업) 기업 수가 287만 개로 전체의 78.7% 차지. 2차 산업(제조업, 광업 등)은 61만 개로 16.7% 차지, 1차 산업(농업, 임업 등)은 17만 개로 4.6% 차지

○ 3차 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70.5%이었으나, 2014년 현재 78.7%로 증가

- 2차 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의 27.0%에서 2014년 현재 16.7%로 감소

< 신규 등록 일반기업 중 2, 3차 산업 비중 추이 >



* 출처: 중국 공상총국

1. 정부의 창업제도 정비

□ 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

- 0 최근 중국은 회사법 개정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부담을 완화했으며, 공상총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 등록된 기업들의 기본 정보 및 처벌 경력 등을 공시함으로써 거래 위험을 감소
- 0 중국은 정부의 불필요한 행정심의절차를 점차 폐지하고,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

< 창업 활성화를 위한 최근 중국의 정책 변경 일지 >

일자	주요 내용	발표기관
2015년 3월	* '대중의 창업 공간을 발전시키고, 대중의 혁신 창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의견' 발표 - 새로운 인큐베이팅 방식을 모색하여 대중 창업 공간을 신속히 마련 - 혁신 및 창업에 대한 문턱을 낮춤 - 과학기술 종사인원 및 대학생의 창업 장려 - 혁신 및 창업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- 재정 자금 지원 강화 - 창업 투자·용자 제도 개선	국무원
2014년 7월	* '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무원 의견' - 공상총국에서 책임지고 '삼증합일' 제도를 추진할 것 - 행정 심의 대폭 감소 - 지역 및 업종별 독점행태 타파	국무원
2014년 3월	* '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' 개정안 정식 발효 - 최저 등록자본금 규정 폐지 (과거 3만 위안~500만 위안의 최저 등록자본금 요구) - 현금출자 의무비율 규정 폐지 (과거 등록자본금 중 현금출자 비중 최소 30% 요구)	전국인민대표대회
2014년 3월	* '전국 기업 신용정보 공시 시스템' 정식 오픈 - 이 시스템을 통해 정부에 등록된 각 지역별 기업 기본정보 및 처벌 경력 등 확인 가능 (사이트 주소: http://gsxt.saic.gov.cn)	공상총국

출처: 중국 중앙인민정부, 공상행정관리총국, 중국 언론 발표자료 등 정리

【참고】 '삼증합일'제도의 시행 전후 비교

구 분	시행 前	시행 後
1	- 영업집조, 조직기구코드증, 세무 등기증 등 세 가지 취득해야 함	- 영업집조만 취득하면 됨(조직기구 코드 및 세무등기번호 함께 기재)
2	- 증서 취득을 위해 공상국, 질량 감독국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 등 네 개 기관을 8차례 방문하여 네 가지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함	- 종합창구에 한 가지 서류를 제출, 두 번 방문하면 됨
3	- 준비서류 26종	- 준비 서류 13종(그 중 하나는 증서 취득 후 제출)
4	- 166개의 데이터 항목 기입	- 74개의 데이터 항목 기입
5	- 증서 취득에 1개월 이상 소요	- 증서 취득에 통상 3일 소요

출처: 경화시보(京華時報)

주: 2014년 12월말부터 일부 지역 대상으로 先 시행 중, 2015년에 전면 보급 추진

2. 귀국유학생에 대한 창업 장려

□ 중국정부는 유학생의 귀국창업을 장려(지원)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
실행

0 2011년에 국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‘유학생 귀국창업 지원
의견’ 을 발표해 자금 지원, 세수 감면, 유학생 단지 조성 등 다양
한 방식으로 귀국유학생의 창업을 지원키로 했음

-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유학생 기업에
대해 기업소득세를 15%(원래는 25%)로 감면
- 연구개발 비용은 실제 발생액 보다 확대 적용하여 세금 공제를
받을 수 있도록 혜택 제공

< 유학생 귀국창업 지원 의견 >

구 분	주요 내용
①정의	<p>*유학생 귀국창업은 해외유학생이 특히, 연구 성과, 전문기술 등을 이용해 귀국 후 창업한 것을 지칭</p> <p>*유학생 기업은 통상 유학생이 기업의 법인대표를 맡거나, 유학생의 자금(기술 투자 포함) 및 해외 벤처투자 금액이 기업 전체 투자의 30% 이상을 차지해야 함</p>
②자금 지원	<p>*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유학생의 귀국창업을 위해 일정 수량의 창업 개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으며, 일정 금액의 정착비용, 혹은 주택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음</p> <p>*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에서는 정부 창업투자 촉진 기금을 설립해 국영기업, 민영기업, 외국기업 등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학생의 귀국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경로를 마련</p>
③세금 지원	<p>*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하이테크 산업에 속하는 유학생 기업에 대해 15%(원래는 25%)로 기업소득세를 감면</p> <p>*연구개발 비용은 실제 발생액의 150%로 확대 계산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 제공</p> <p>*농림축수산업,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,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</p>
④정부 조달	<p>*유학생 기업의 정부 조달 입찰 지원</p>
⑤창업기지 조성	<p>*각 지역은 경제기술개발구, 대학교 과학기술단지, 유학생 단지 등을 이용해 유학생들의 귀국창업 기지 조성</p>

* 출처: 중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(2015년 4월 검색)

□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각 지에는 귀국유학생 창업 단지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

0 1994년에 중국 난징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귀국유학생 창업단지는 2013년에 베이징과 상하이로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에 280개가 건립되었으며, 입주기업 수는 1.6만개에 달함(2013년에만 2500개 기업이 신규 입주). 현재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이 주무부서가 되어 귀국유학생 창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담당

- 2013년 말 기준으로 귀국유학생 창업단지에는 4만 명의 귀국유학생이 근무하고 있으며, 누계로 3.5만개의 기업을 인큐베이팅함

□ 매년 중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창업단지 숫자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

○ 중국 각 지역의 귀국유학생 단지 수도 2006년 말 현재 110개에서 2013년 말 현재 280개로 2.5배 이상 증가

< 최근 10년간 귀국유학생 단지수 추이(누계) >

(단위: 개)



* 출처: 국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, 교육부 및 기타 언론 발표자료

□ 창업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귀국유학생 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

○ 2013년 말까지 귀국유학생 단지에 설립된 기업 수는 총 1.6만 개로, 2013년 한 해에만 2,500개의 기업이 신규 입주했음

□ 창업단지에 입주한 귀국유학생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보면, 주로 하이테크산업에 집중

○ IT 기업이 43.4%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그 다음은 바이오 의약 17.6%, 첨단제조 10.9%, 신소재 8.1%, 친환경 7.7%, 콘텐츠 2.5% 등이 그 뒤를 이었고, 현대서비스 등 기타 나머지 업종이 9.8% 차지(87개 단지 조사)

【사례】 텐진빈하이 하이테크구 해외유학생 창업단지(TIBI)

- 본 창업단지는 1998년 8월에 텐진빈하이 하이테크구 관리위원회에 의해 설립됨. 2009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국가 해외고급인력 혁신창업기지로 승인됨
- 2013년 말까지 미국, 캐나다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귀국한 800명의 유학생이 본 창업단지에 기업을 설립. 본 창업단지를 통해 인큐베이팅을 받은 기업은 누계로 591개에 달함

* 출처: 중국유학인원창업연감(2013), TIBI 공식 홈페이지

3. 전자상거래의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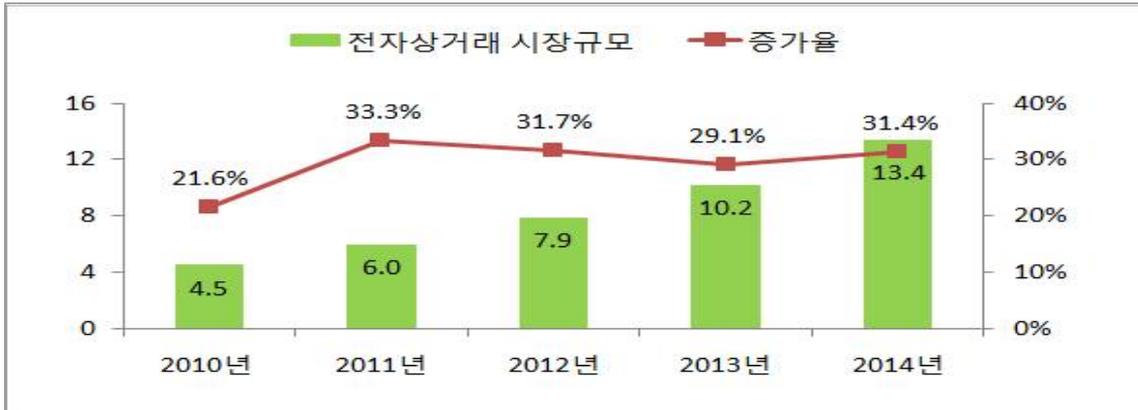
□ 최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이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

0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중심(CECRC)에 따르면, 2014년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3.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31.4%가 늘어남

- 최근 5년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20~30%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
-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B2B(기업 대 기업)가 74.6%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, B2C(기업 대 소비자)가 21.0%, O2O(Online to Offline)가 4.4%를 차지

<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>

(단위: 조 위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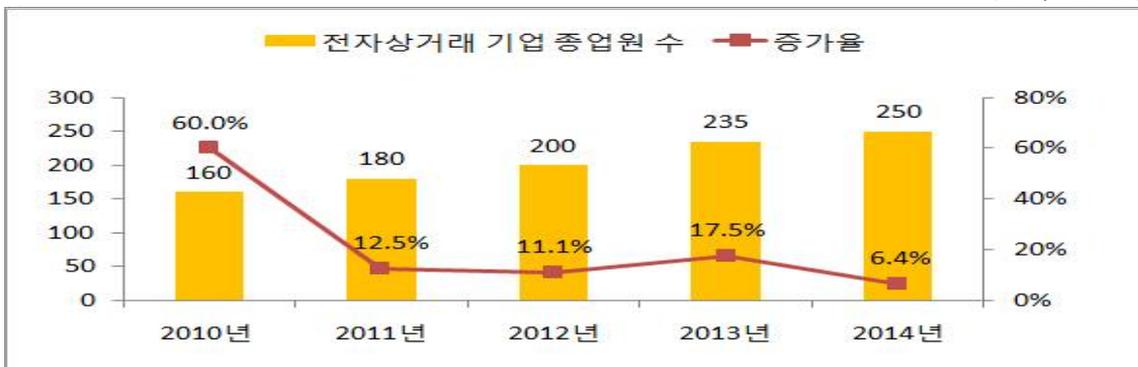
* 출처: CECRC

0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 인원 수도 지속 증가. 2014년에 전자상거래 기업 종업원(직접 고용인원)이 250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6.4% 증가. 그 외 택배 등 관련 업종 종사자(간접 고용인원)들의 규모도 동반 성장하여 2014년에 1,800만 명에 달해 전년 대비 7.1% 증가함

-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종업원 수는 2010년에 60% 급격히 증가하였으며, 2011년~2013년 기간에는 매년 10%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음
- 간접 고용인원수도 유사한 증가세를 보여, 2010년에 50% 증가한 이후 2011년~2013년 기간에는 매년 10% 이상 증가

<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종업원 증가 추이 >

(단위: 만 명)



* 출처: CECRC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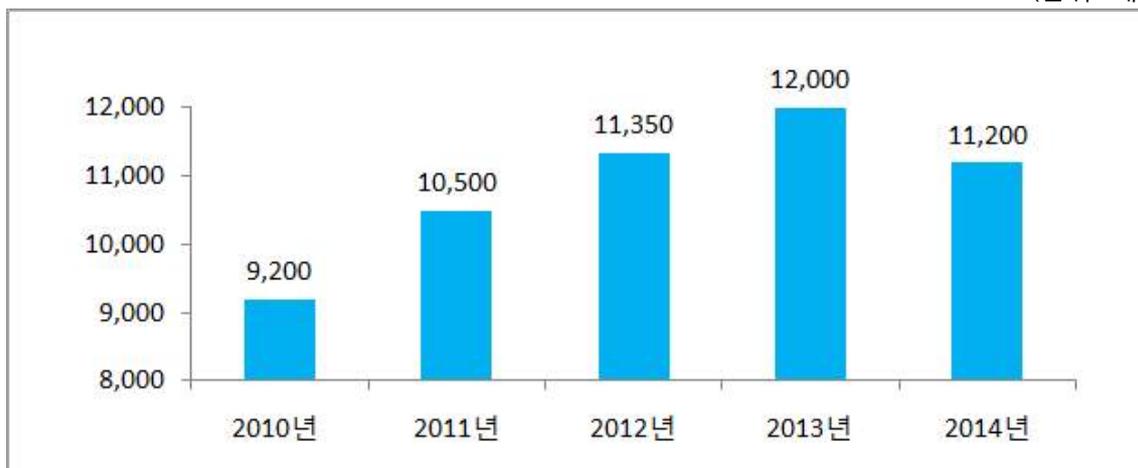
□ 최근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기업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4년에 일부 감소

0 2014년에 중국의 B2B 전자상거래 기업 수는 1만1,200개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

- B2B 기업 수는 2011년에 1만개를 초과한 이후 2013년까지 1만 2,000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
- 최근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해외시장의 침체에 따른 퇴출 기업 수 증가로 2014년에 기업 수가 일부 감소

< 최근 중국 B2B 전자상거래 기업 수 증가 추이 >

(단위: 개)



* 출처: CECRC

□ 최근 창업한 기업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, 제품의 종류 및 업태를 불문하고, 온라인과 관련 있는 창업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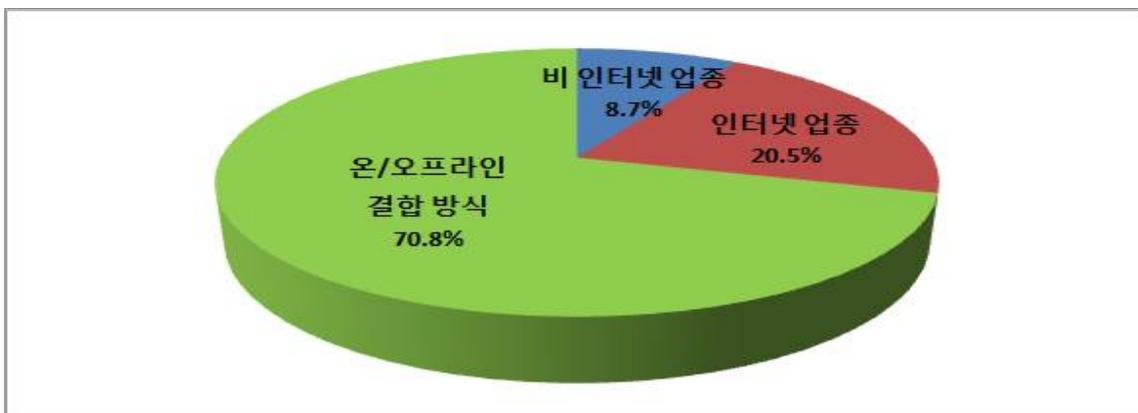
0 중국의 창업정보 및 서비스 제공 전문업체인 창업방³⁾(創業邦)이 진

3) 창업방은 미국의 글로벌 IT 미디어 기업 IDG(International Data Group)가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투자한 회사임

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설문에 응답한 90% 이상의 기업이 인터넷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, 온/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한 형식을 선택

- 온/오프라인 결합 방식을 선택한 창업 비중이 70.8%로 제일 많았으며, 순수 인터넷 관련 업종은 20.5%, 인터넷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종이 8.7%로 제일 적었음

< 온라인 관련 창업 방식별 비중 >



* 출처: 창업방

□ 분주한 도시인들의 수요에 맞춘 온라인 주문 방문서비스가 창업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음

0 최근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완료하면 업체에서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세차, 안마, 네일아트, 식사준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색 서비스가 인기

- 바쁜 도시인들의 일상 시간을 최대한 아껴줄 수 있는 방문서비스, 포장 식품, 다기능 주방용품 등 관련 업종을 총칭하여 ‘게으름 경제’ (懶人經濟, The Lazy Economic)로 칭하고 있음

0 온라인 주문을 통한 방문서비스의 인기가 상승하게 된 원인으로 도시인들의 바쁜 일정과 모바일 인터넷의 보급을 손꼽을 수 있음

- 중국인터넷정보중심(CNNIC)에 따르면, 2014년 말까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5.6억 명에 달했음. 모바일 상거래, 모바일 결제, 모바일 뱅킹 등의 사용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63.5%, 73.2%, 69.2% 증가함

【사례1】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주문

- 상하이에 거주하는 왕씨는 연휴 기간 동안 훌가분한 휴식을 작정하고, 모바일 앱을 이용해 몇 종류의 서비스를 주문
 - 오전 9시 청소부가 내방하여 4시간 동안 깨끗이 집을 청소
 - 오후 1시 네일아트 디자이너가 내방하여 서비스 제공
 - 오후 3시 요리사가 내방하여 저녁식사 준비, 설거지까지 완료

【사례2】 방문서비스를 이용한 창업

- 온라인 주문을 통해 의료 마사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기 모바일 앱은 3명의 법대출신 바링호우(80后, 1980년도 이후 출생자)에 의해 개발
- 본 모바일 앱은 중국 고대 명의 화타의 이름을 본 따 ‘화타가도(華陀駕到)’로 지었으며, 2014년 말까지 6천 건의 주문을 접수
-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메신저인 웨이신(WeChat)에 쇼핑물을 개설하는 방식은 소액창업자들이 적은 자금으로 창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

0 중국 현지 언론사 간저우완보(赣州晚报)에 따르면, 2014년에 중국의 웨이신 쇼핑물 수량은 1천만 개에 달했으며, 2015년에는 5천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

- 웨이신 쇼핑물은 엄격한 등록 규정이 없고, 등록자본금이 필요 없으며, 웨이신 프로그램만 다운 받으면 3~4분 내로 설치 가능

【사례1】 웨이신을 이용한 한국화장품 판매

- 최근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를 보내고 있는 송씨는 집에서 아기를 돌봄과 동시에 짬짬이 웨이신을 통해 한국화장품을 판매
- 송씨는 한국에 유학을 간 친구를 통해 EMS로 한국 화장품을 송부 받은 후, 웨이신의 친구그룹(朋友圈, 카카오 스토리 유사 서비스)을 통해 제품이 왔음을 공지
- 한국화장품에 관심이 있던 송씨의 친구들은 웨이신을 통해 송씨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온라인으로 송금. 송씨는 주문 확인 후 택배로 제품을 발송

【사례2】 웨이신을 이용한 음식 판매

- 충청에 거주하는 양씨는 웨이신에 쇼핑물을 오픈한지 3개월 만에 1천명 이상의 단골손님을 확보
- 음식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손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웨이신의 친구그룹에 공개한 후, 수많은 웨이신 친구들이 양씨에게 동일 음식을 주문할 수 없는지 문의가 쏟아졌음

- 예상 밖의 상황에 양씨는 남편 및 시어머니와 상의 후 본격적으로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포장하여 웨이신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. 판매 개시 후 장사는 성황을 이루어, 주문이 많이 밀려드는 날에는 하루 8천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함

4. 외국인투자

□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, 201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

○ 2014년의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(FDI)는 1,196억 달러로, 전년 대비 1.7% 소폭 증가

- 對중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에 사상 처음 1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, 현재까지 연 1천억 달러 이상의 수준을 지속 유지

<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액 연간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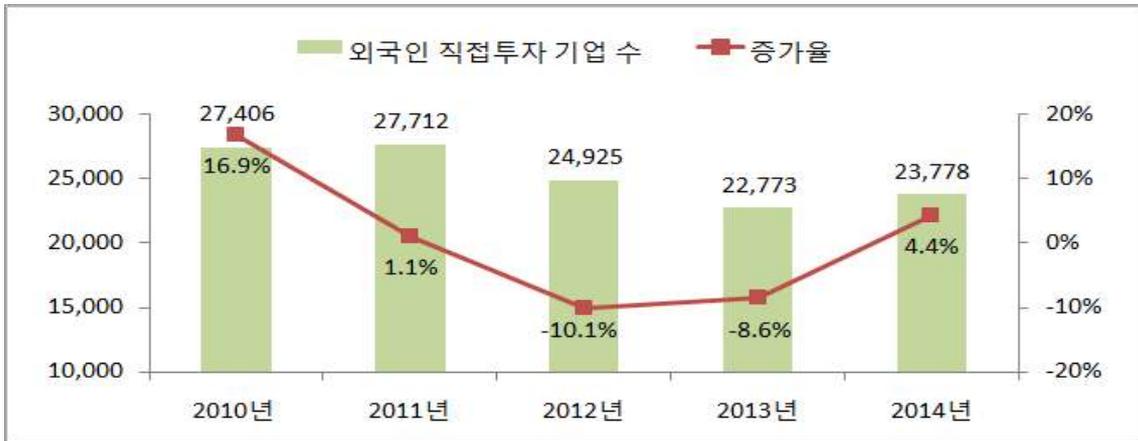
* 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

○ 2014년의 외국인 설립 기업 수는 총 2만3,778개에 달했으며, 전년 대비 4.4% 증가했음

- 2012년~2013년 기간에 외국인 설립 기업 수는 감소세를 보였으나, 2014년에는 다시 증가세를 회복

<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 수 연간 추이 >

(단위: 개)



* 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

□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 후의 미취업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임

- 0 중국 교육컨설팅 기관인 마이코스(MyCOS, 麥可思)가 발표한 ‘2014년 중국대학생 취업보고’에 따르면, 2013년에 졸업한 대졸자 중 졸업 6개월이 지난 후의 상황을 보면, 81.8%가 취직(파트타임 포함)했으며, 6.1%는 대학원에 진학(유학 포함)했고 2.3%는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(9.8%는 미취업 상태)

□ 대학생들이 졸업 후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

- 0 중국 현지 언론사 경제일보(經濟日報)에 따르면, 2014년에 총 48만 명의 대학생이 창업을 개시하여 전년 대비 33.3% 증가함
 - 올해 중국의 대학생 졸업 규모는 749만 명에 달하며, 2014년의 졸업자 중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창업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0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,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대학교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당해 졸업생들에 한해 ‘대학교 졸업생 자체 창업증’을 발급하며, 본 증서를 소지한 학생들은 현지의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- 예를 들어, 대학생 창업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, 3년간 당해 지급해야 할 영업세, 도시 유지 건설세, 교육비 부가세, 개인소득세 등 세금항목들을 연 8천 위안 이내로 면제해 줌
- 신창타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창업을 통한 취직난 해소는 중국정부의 큰 과제임

0 경제성장률이 1% 하락하면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서 중국 정부의 창업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

【참고】 중국 정부, 창커(创客, 혁신 창업자) 사이트 운영 개시

□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의 혁신 및 창업 지원을 위한 '창커(创客, <http://cnmaker.top>)' 사이트를 구축하고 최근 운영을 개시함

○ 동 사이트는 클라우드소싱(대중참여 기업활동), 클라우드펀딩, 성과물 판매, 기능교육, 공동혁신, 산업클러스터 등 6대 기능을 보유하여 향후 5년내 10만개의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임

○ 동 사이트에는 현재 창커(创客)작품으로 게임·애니메이션, 디지털제품, 기계설비, 가전, 가구, 공예장식품, 창의적인 자동차모델, 생활공간, 작업공간, 운동장비 등 98건의 작품이 게시되어 있음

□ 경제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기업의 창업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중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저하되지 않고 있음

0 정부의 지원 하에 젊은 층의 창업 증가, IT플랫폼을 활용한 저비용 창업, 외자의 유입증가 등은 중국이 경제대국에서 창업대국으로 나가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음